

지역 작가들과 국내외 작가들을 매칭한 전시 '호.연.지.기'전이 광주롯데갤러리에서 3월13일까지 열린다. 전시에서 선보이고 있는 유지원 작가의 설치 작품.



광주롯데갤러리 '호.연.지.기'전 이인성·이세현·유지원·하루.K 야요이 쿠사마 등과 작품 매칭

## 광주 청년작가와 유명작가들의 '만남'

익숙함에서 벗어나 외부의 시선으로 자신의 작품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은 작가들에게 필요하다. 특히 자신의 작품이 큐레이터나 관람객들에게 의해 새로운 시각으로 끊임없이 해석되고 이야기 된다면, 그것만큼 의미있는 일도 없을 것이다. 다른 작가의 작품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새롭게 살피는 일은 더 없이 흥미롭다.

광주롯데갤러리가 4명의 지역 작가와 4명의 국내외 작가들을 매칭한 전시를 열어 눈길을 끈다. 신년 첫 기획전 'Maching Making 호.연.지.기(壺.緣.知.期)-호랑이 해에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다음을 기억하다'는 이인성·이세현·유지원·하루.K 등 지역 청년 작가와 윤정선·허구영·무스타파·홀루시·야요이 쿠사마 등 자신의 작품 세계를 구축한 국내외 작가들이 짝을 이뤄 소개되는 자리다.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의 지역 작가들은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이틀이다.

롯데갤러리는 작품의 주제, 작가적 지향점, 형식과 매체 등의 공통분모를 찾아 작가들을 매칭했다. 이번 초대전은 롯데갤러리가 지역 미술계와 다시 적극적인 소통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기획이자, 국제적으로 인지도 있는 작가들을 지역에 소개한다는 점에서도 눈여겨 볼만하다.

유지원과 허구영 작가는 사회 속에서 버려지거나 잊혀진 개념과 물질, 관계를 재해석한다는 공통점으로 묶였다. 다른 3명의 작가가 대학 졸업 후 줄곧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해왔던 데 비해 유 작가는 프랑스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친 후 귀국,

다양한 그룹전과 개인전에 참여하며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지난해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나도 잘 지냅니다'전에서 폐지와 박스를 실은 리어카를 전시한 '노동의 가치'로 눈길을 끌었던 유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집', '흔적도서관' 등의 설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목원대 교수로 재직중인 허구영 작가는 무용한 것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며 질문을 던지는 작업들을 주로 해왔다.

역사적 현장을 끊임없이 영감에 담은 사진작가 이세현은 터키 출신으로 영국에서 활동하며 다문화 정체성을 담고 있는 무스타파 홀루시와 짝을 이뤘다. 두 사람은 작가의 삶과 예술적 실천 속에는 자신들의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이슈와 역사, 문화가 담겨야한다는 생각으로 작업해오고 있다.

독특한 '음식산수' 작업으로 이름을 알린 하루.K 작가는 호박, 과일 등 즐거움을 주는 다양한 오브제로 작업하는 야요이 쿠사마와 나란히 작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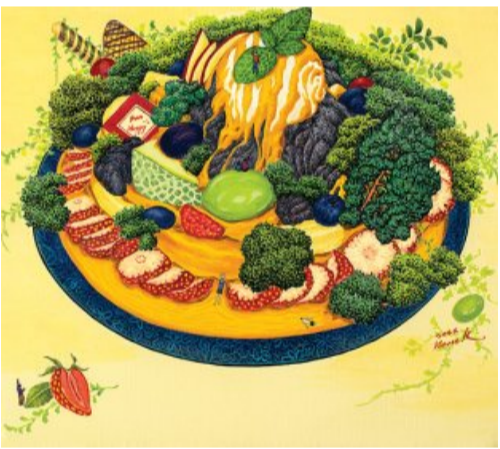
전시중이다. 두 사람은 현대인의 이상향, 시각적 즐거움을 추구하며 예술을 통해 물질과 정신의 조화로운 모습을 추구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 이인성·윤정선 작가는 개인과 사회적 삶 사이에서 고민하는 작가의 내면을 회화라는 매체를 통해 고집스레 담아내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한편 롯데갤러리는 이번 전시를 기회로 지역과 소통의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개관 후 '창작지원전' 등을 통해 지역 청년작가들을 발굴하는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진행하며 지역 미술계를 풍성하게 했던 롯데갤러리는 2년여전부터 소극적인 활동으로 다소 아쉬움을 줬다.

최근 본사에 아트비즈니스실을 신설하고 전문가를 영입한 롯데갤러리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 지역 작가를 적극 소개하고 국제적으로 인지도 있는 작가를 지역에 알리는 등 활발히 움직일 계획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하루.K 작 '맛있는 산수(과일빙수)'



야요이 쿠사마 작 'Hello!'

## 국립광주박물관, '여수 흥국사' 보고서 발간

문화재 81건 568점 선별 수록

여수 영취산 아래 자리한 흥국사는 고려 후기 승려 보조국사 지눌(1158-1210)이 창건한 후 여러 차례 중건을 거쳐 조선 후기에 흥성한 사찰이다. 국가지정문화재 10건을 비롯해 조선 후기 불교미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많은 문화재들을 소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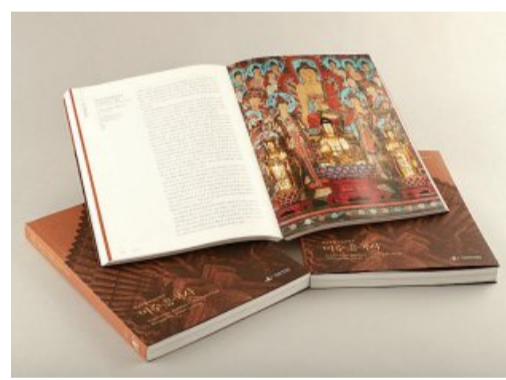
흥국사 문화재를 심층 조사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수미)은 흥국사 소장 불교문화재를 조사한 '여수 흥국사'를 펴냈다. 보고서는 1장에서 조사사업의 개요를 소개하고 수

록 문화재를 중심으로 흥국사 연혁과 중건을 다뤘다. 2장에서는 조사 대상 문화재 중에서 역사적·미술사적 가치를 지닌 81건 568점을 선별해 수록했다.

특히 비문·상량문·발원문의 번역글을 추가해 흥국사 소장 문화재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를 담았다. 조사성과는 올해 5월 개최 예정인 광주박물관 특별전 '남도문화전 VII-여수'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광주박물관은 지난 1971년 주요 불교회화를 중심으로 흥국사에 대한 조사를 처음 실시했다. 이후 50년 만인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본격적인 조사를 추진했으며 이를 토대로 주요 건축을 비롯한 불교회화, 불교조각, 공예, 석조미



술, 서지와 전적, 목판화를 포함한 총 150건 812점 문화재를 심층조사했다.

8명의 조사위원과 4명의 자문위원이 8개월간 현지 조사 및 분석작업을 담당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이란 감독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 '지그재그 3부작'

광주극장이 설 명절을 맞아 특별한 기획전을 마련했다.

광주극장은 '올리브 나무 사이로', '체리 향기', '사랑을 카피하다' 등을 연출한 이란의 영화감독 압바스 키아로스타미(Abbas Kiarostami)의 '지그재그 3부작'을 29일부터 2월8일까지 상영한다.

'지그재그 3부작' 시리즈 중 첫 번째 작품인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는 29일과 2월2일 상영한다. 작품은 친구의 집을 찾는 한 아마드의 하루를 그린 영화로 어린이의 눈을 통해 본 '착한 세상'이 소박하게 펼쳐진다. 아마드는 숙제를 제대로 안해 매일 선생님에게 꾸중을 듣는 짜증 내마자데의 공책을 가져와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민에 빠진다. 아마드는 친구의 공책을 펴고 숙제를 대신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 (29일·2월6일)는 199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

'올리브 나무 사이로'

광주극장 29일~2월 8일

년 이란 북부에서 발생해 5만여 명의 사상자를 낸 지진을 배경으로 한다. 극중 키아로스타미 감독은 아들을 데리고 코케로 향한다. 아마드와 네마자데가 살아있는지 걱정돼서다. 영화는 감독과 아들 역으로 출연한 두 배우가 두 아이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다.

마지막 '올리브 나무 사이로'는 2월 5일과 8일 상영한다.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의 메이킹 필름의 형식을 띤 이 작품은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를 찍을 무렵 지진 직후의 폐허에서 결혼식을 치른 신혼부부의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했다. 문의 062-224-5858.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 책들이도서관, '겨울나라 눈 오는 도서관' 진행

책들이도서관(광주시 북구 오치동·사진)이 2월19까지 '겨울나라 눈 오는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겨울에 눈이 내리길 간절히 소망하는 친구들에게 눈을 선물하고자 '눈 내리는 도서관'을 주제로 진행된다. 도서관 내 이벤트 구역을 지정해 다양한 공간에서 책을 즐길 수 있도록 '이글루에서 별 보기', '움직이며 즐기는 책', '무민과 조무래기들' 등 주제별로 책을 전시하고, 겨울놀이터와 눈이 내리는 따뜻한 인디언 텐트에서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책들이도서관은 (사)어린이도서관연구회 광주지부가 지난 2008년 지역민의 후원으로 설립했으며 1만3000권의 장서(그림책 5000권)를 보유하고 있다. 원하는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류를 활용하고 각종 전시를 기획하며 독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부 안내 및 일정은 다음카페 책들이도서관 또는 전화(062-266-7279)로 문의하면 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한국문예위 '소설가의 방' 입주작가 공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는 신진 소설가들에게 집필공간을 제공하는 '소설가의 방'에 입주할 작가를 공모한다.

'소설가의 방'은 문화예술위원회와 서울프린스호텔이 협력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창작집 발간을 앞둔 소설가들에게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 8년간 81명의 작가가 서울프린스호텔 집필공간을 이용했으며, 한 해 평균적으로 10명의 작가가 입주했다.

선정된 작가는 소설가의 방 전용 객실에서 4-6주간 머물며 집필활동을 할 수 있다. 올해는 상·하반기 나눠 두 차례 모집하며 상반기 신청은 오는 2월 6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예년과 다르게 올해는 기존 '등단 10년 이내 소설가'라는 지원자격을 '첫 창작활동 10년 이내 작가'로 확대했다. 소설 분야 창작활동에만 제한하며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40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Since 1982

#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